

EUNSEOK CHURCH MATHETES

존재

전선경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내 가슴을 건다

내 안에
찌르는
작은 가시가
아파서

뜨거운 눈물이
당신의
마른 면류관에서
감사의 꽃을
피울 때까지

제24권

48

2016.11.27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즐겁게 받으리라

겔 43:18-27

죄만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단지 탁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보내신 분이 목자하신 바가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세상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고난 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몸으로 증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로 가셨습니다.

고전 6:14-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은 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죽었음을 전제합니다. 즉 죽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관계에 있게 됨으로 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음의 흔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은 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관계에 머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몸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곧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둥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외에 그 어떤 몸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며 죽은 몸일 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거룩했다고 해서 역시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아도 몸은 죽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 아래 있는 몸의 실상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필요하고 행해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에 또 다시 솔로몬 성전의 것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1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아 주 여호와께서 아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아라하나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본문은 제사와 연관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나 필요할 것 같은 제사규례가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또 다시 제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존

속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천사로 하여금 축약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을 그대로 건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제단과 제물과 제사에 대한 규례 또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실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 규례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제사를 시행하는 것이 죄를 용서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성전 신앙입니다. 이러한 성전신앙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 신앙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시행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 받는다** 는 생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둔 자신을 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네가 그 파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신앙에서의 제사는 제사하는 본인의 죄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사가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

다. 하지만 20절에서는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과 제단 아래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는 행위가 제단의 정결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2절도 보면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 모든 제사가 제사를 행하는 자의 죄 사함이 아니라 제단의 정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제사를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사 규제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한 장치로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제사를 행함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인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죽은 몸으로 존재합니다. 죽은 몸이 제사를 행했다고 해서 산 몸으로 교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한다 해도 죽은 몸은 죽은 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자신들이 죽은 몸이라는 것을 모른 것이고, 죽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며 지금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단 위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로 인해 제단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과 번제와 제물의 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

성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 즉 거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곧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행한다 해도 거룩과는 무관하며 죽은 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몸으로 행한 것이 자랑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서로의 행함을 비교하며 믿음의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 규제가 언급되는 것은 인간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완성, 즉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규제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곧 거룩의 세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인간의 행함이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이루신 피의 세계를 믿을 뿐이고 그것으로 거룩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신다”** 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받으시는 이유는 제사장이 정결한 제단 위에서 우리의 번

제와 감사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19절의 **“주 여호와와 말씀이 나라 나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라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본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의 기원은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제사 규례가 솔로몬 성전의 제사 규례의 연장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사독의 자손일까요? 그것은 사독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아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독 자손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분명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등장하여 언급됩니다. 제사제도와 제물에 대한

규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폐지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죄는 성전에서 몸으로 뭇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기에 자신의 몸으로 뭇가를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고 몸의 죽음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죽은 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죽은 몸이며 그 몸으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 7:19)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손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믿음 또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일, 제사법, 제물의 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손으로 뭔가를 행해야 하거나 몸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몸으로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모든 것을 이름으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한 것

이 없으며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핑계 삼아 자기 행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에 의한 행함을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행함을 실천하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세계에서 주장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행함이 행함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줄것에 받으십니다. 따라서 죽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은혜이며 복입니다.

믿음과 영생

요 17:1-3

믿음 89광 11. 6일 설교

영생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없는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누구도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고 영생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교'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나를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 한다'는 교리를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자신과 동일하게 죄에 붙들려 그 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죄인을 추종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 외에는 육신의 죽음이 없는 영생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전부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전통적 생각이고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 없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그처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관념적 영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영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진시황제일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죽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고, 죽은 후이라도 왕으로서의 권력과 부귀영화 속에 있고자 하여 군사 모험으로 가득한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이야말로 영생을 향한 인간 욕망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영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또한 영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예수께 질문한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영생에 결람들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영생에 있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결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영생에만 초점을 두는 자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로움은 물론 세상과는 무관한 영화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 받는 관계에 머물기 위해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을 만들어 내는 일에 힘을 씁니다. 자신이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 받고 구원 받을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야말로 버림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를 아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성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세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자기 소원을 끄집어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인간됨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 질문한 사람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신자다운 것인가?'라는 생각에 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에 있어서 결림돌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으로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영생에 참여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롬 6:21-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선언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 받고 인정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확인 받을 것도 인정받을 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확인 받는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랑의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3: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다는 고백과 함께 주만 바라보게 할 뿐

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죽은 후의 문제로만 인식하게 되면 살아있는 현재는 세상의 것을 쟁기는 것에 뜻을 둘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세상의 것이 확대되는 것에서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세를 믿으며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도 영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조차도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무능함을 알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이 존귀함으로 다가오면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야말로 크신 은총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이 은총에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

출 1:8-14

2강 2016. 11. 23일 설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애굽에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 해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은 이미 굳건한 삶의 터

전으로 굳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애굽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애굽에서 나가자고 외친다면 과연 순순히 따라 나올까요? 현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400년이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애굽이 자신들이 살만한 곳이 아님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한 민족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에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을 자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애굽에 끼친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게 된 내막을 왕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이 수백 년 전에 요셉이란 인물에 의해 애굽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안다 해도 요셉에 대해 고마운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무엇보다 현재의 애굽이 요셉과 상관없이 자신의 통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는 뜻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억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간까 하노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이 더 번성해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대적과 연합

하여 싸우고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에 동원하여 부려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애굽의 경제력 손실로 여긴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한 민족으로 번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대를 합니다. 11절에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둑과 라암셋 성 건축이라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 번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게 합니다. 그 때문에 애굽 사람은 더 근심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성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불잡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현재적 위치를 무너뜨리며 다가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마음

을 두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자신의 우익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복음 이 배척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의 참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히브리 신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또한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다. 답은 역시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번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이 자신들이 머물 곳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확대가 있기 전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이 살만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애굽에 마음 두지 않고 떠나야 할 것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 애굽의 확대를 두고 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이 아닌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까요?

애굽 왕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발행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을 것입니다. 유불리만 따지면서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배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에 더 집착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나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세상에서 나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깊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에 호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세상이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이스라엘의 확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생각하게 하고 애굽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신자의 사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에 궁금함과 의문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져야 천국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죄만 있는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죄 없는 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에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으데 천국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보게 하시고 그 죄와 불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절감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만한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신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파수꾼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 1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 캄보디아의 홍수 지역은 물이 빠져서 피해상황을 파악 중인데 여름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입지 않은 여름옷(아름, 아이 상관없음)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꽃나무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전	11:00
주 일 오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유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4장
교 독 문 58(시133편)
기 도 이성희 장로
찬 송 339장
성경봉독 겔 43:18-27

● 즐겁게 받으리라(104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16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김종건 집사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유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61장
기 도 이애림 집사
찬 송 397장
성경봉독 마 23:8-10

● 믿음과 리더십(믿음92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9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박상윤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유식 목사

출애굽기 강해 3강